



2023
KOB.A

제31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 성황리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5월 16일(화)부터 5월 19일(금)까지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Next Stage? Break the Frame!’ 주제로
40,770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폐막

전시회 일자별 관람객 현황	
5월 16일(화)	8,267명
5월 17일(수)	11,451명
5월 18일(목)	11,357명
5월 19일(금)	9,695명

‘Next Stage? Break the Frame!’이라는 주제로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A, C, D홀 및 컨퍼런스센터에서 제31회 국제 방송·미디어·음향·조명 전시회(KOBA 2023, 31st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Media, Audio & Lighting Show)가 개최되었다.

한국이앤엑스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OTRA, KBS, MBC, SBS, EBS, OBS, CBS, 아리랑국제방송, t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음향학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방송사의 후원으로 열린 KOBA 2023 전시회는 29개국 528개 사가 참가하여 총 1,150부스의 규모로 작년보다 개최 규모와 참석 인원이 증가하는 등 예년의 위상을 회복했다.



KOBA 2023 개막 커팅식에서의 개막 인사들



개막식 축하 중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막식 축하 중인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실장



업체 부스에서 KOBA의 주요 테마와 트렌드를 소개받는 개막 인사들



개막 기념 오찬에서 KOBA 개최에 대한 답소를 나누며, 건배하는 개막 인사들

지난 16일 개막식에는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실장, 김의철 한국방송협회 회장, 김유열 EBS 교육방송 사장, 주동원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윤상철 한국음향예술인협회 부회장, 이신렬 한국음향학회 위원장, 업계 대표로 조준영 고일 회장, 박용석 동화에이브이 대표이사, 김한승 썬더테크놀로지 회장, 박정우 캐논코리아 대표이사, 남명희 케이투이 대표이사가 참석했고, 주최 측인 김충한 한국이앤엑스 회장, 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과 주요 외빈으로는 Del Parks 싱클레어 방송그룹 President of Technology가 참석했다.

더욱 확장된 KOBA 2023

작년 KOBA 2022는 코엑스 3층 C, D홀에서 열렸던 반면, 올해 KOBA 2023은 예년의 전시 규모로 돌아와 1층 A홀과 3층 C, D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 면적이 넓어진 만큼 더욱 다양한 업체가 참가하여 자사의 방송 및 미디어 솔루션을 전시하였는데, 우선 지난해 참가하지 못했던 소니코리아가 올해에는 부스를 꾸려 4년 만에 참가했다. 그밖에 For.A와 티브이로직, 하모닉을 비롯한 영상제작 및 전송업체의 참가가 늘었다. 비브스튜디오스는 올해 KOBA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VR 제작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니콘이미징코리아, 반도영상, 코리아포토프로덕츠 등 이미징/영상솔루션 업체도 KOBA와 뜻을 같이하여 자사의 제품을 전시했다.



KOBA 2023 전시장의 다양한 장면들, 관람객의 관심을 받으며 트렌드 공유의 장이 되었다

이번 KOBA 2023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업체에서 수많은 제품과 볼거리가 제시되어 화제가 되었다. AI와 IT/IP 솔루션을 비롯해 AR/VR/XR 콘텐츠 및 트렌드와 4K/8K 영상 촬영/전송 장비 및 기타 기기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에도 음향 및 조명, 방송 콘텐츠 제작 관련 전시 내용으로 보고, 경험할 거리가 충분했다. 특히 작년보다 늘어난 XR 제작 솔루션 전시는 전시장을 둘러보는 참관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으며, 실사와 같은 뛰어난 그래픽 구현으로 최신 콘텐츠 제작 방법을 살며시 경험해볼 수 있었다. 또한, 1인 방송을 위한 경제적인 장비들과 미디어 서버 및 스토리지/아카이브 등 미디어 기획과 제작, 관리, 보관, 송출, 유통에 이르는 모든 장비/솔루션이 관람객의 관심을 받았다.

KOBA 월드 미디어 포럼 & 미디어 컨퍼런스

KOBA의 부대행사로 KOBA 첫날인 5월 16일에 개최된 '월드 미디어 포럼'은 'Beyond Baseband Beyond Broadcasting'를 주제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제작과 송출 기술을 넘어서 새롭게 IT 기반 시대에 맞는 기술을 분석하고 미래 방송기술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 Cisco의 콘텐츠 전송과 스트리밍, Huawei의 콘텐츠 저장과 활용에 대해 각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자사의 핵심 기술과 방송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본 후 IT 기반 방송 환경에 대한 토론이 진

행되었다. 방송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 클라우드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은 많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사나 미디어업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다. 비록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그 보편적인 활용은 얼마 남지 않아 보였다. IP를 통한 콘텐츠 전송과 저장까지 이번 월드 미디어 포럼에서는 발전하는 IT 기술인 콘텐츠 제작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도있는 내용과 과정으로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줄였다고 볼 수 있겠다.



IT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았던 월드 미디어 포럼



다양한 기술 트렌드와 제작 현황을 공유했던 미디어 컨퍼런스

5월 17일과 18일에는 '미디어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방송 및 미디어 기술과 관련 서비스 현황을 다루었다. '미디어 컨퍼런스'는 기존 행사명을 '국제 방송기술 컨퍼런스'에서 변경하여 보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며, 방송을 포함하는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목표로 기획되었다. 주요 세션만 살펴보면, 미디어/AI/XR/조명 트렌드, IP 방송과 함께 지상파 UHD 혁신서비스 현황, 비디오 전송 기술의 변화 등이 강의되었다. 또한, '미디어 컨퍼런스'에서는 Grass Valley, Panasonic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IT 솔루션을 살펴보고, 5월 18일 308호에서는 '현직 방송기술인과의 만남'을 주제로 방송사 사원과 예비 방송기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가 공개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후기와 현황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보니, 많은 공감과 격려, 응원이 함께한 자리였다.

또한, KOB.A 개최 3일간 발행된 KOB.A Daily News는 미디어 동향과 KOB.A 전시장 및 행사 소식을 빠르게 전달했으며, 더 작아진 사이즈로 휴대성이 높아져 참관객들에게 인기였다. 한편, 내년 KOB.A 2024는 2024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더욱 다양한 전시 내용과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



컴팩트 해진 KOB.A Daily News

